

##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기획



치협은 지난 4월 17일 힐튼호텔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신임회장단 선출, 정관개정(안) 심의, 치과전문의회 심의 등 첨예한 문제 논의를 앞두고 대의원 201명중 200명이 참석하는 높은 참석율을 보인 이번 총회에서 정관개정(안)과 관련, 공직지부 삭제제를 제외한 상정안을 일괄통과시킴으로써 치의학회를 치협 산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치과전문의회제도와 관련, 치과전문의회도 관계법령 개정위원회(이하 법개위)에서 논의한 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총회 전날 지부장회의에서 도출한 수정안과 치협 법개위안 등 2개안 이 상정됐으나 재석대의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향후 법개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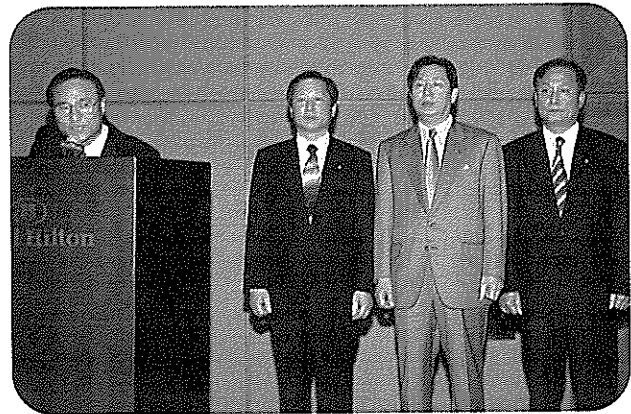
한편 개최식에는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섭 의원, 황성균 의원, 황규선 의원 등 정계인사와 의협 유성희 회장 등 의료계 4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 제24대 협회장, 이기택회장 재선

이기택 현(現)협회장이 제24대 협회장에 재선됨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4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협회장은 1차투표에서 97표를 얻어, 각각 64표와 35표를 획득한 정관회 후보와 백순지 후보를 눌렀으나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2차투표에서 정관회 후보와 대결, 104표를 차지해 13표차로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임형순 현(現)부회장, 정재규 현(現)부회장, 김광식씨가 선출됐다.



## 조행작 국제이사,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부회장 당선

치협 조행작 국제이사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에서 부회장에 당선됐다.

조국제이사는 17개 회원국이 참석한 총회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3표를 획득,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연소이자 APDC 최단기 참석자로서 부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회장에는 인도와 호주 출신 후보자와 경쟁한 필리핀의 디암포 림(Diampo Lim) 박사가 당선됐다.